

- 신바람 나는 그림
- 함께 누리는 그림
-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발행인 홍대봉/발행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발행일 1988년 11월 30일/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36-11/전화 44-8942



시민미술전의 전시광경
25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루었다.

시민미술전을 마치고

우리그림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 까지 안양미술관에서 안양시민미술전을 열었다. 여기에는 우리그림이 시민대중의 표현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미술학교 및 각종 강좌들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과 회원이 자신의 삶을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6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지역 내외의 전문 미술인들의 찬조 출품도 있었다. 시민작품전이 열리는 동안 부대행사로 작품전 열림마당(20일), 미술인 좌담회(21일), 슬라이드 상영 생활속의 우리문화(22일) 등이 준비되었으며 23일에는 제7회 우리그림의 날이 진행되었다.

첫날 작품전 열림마당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참석하여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21, 22일 행사에는 참석자가 적어 준비한 사람들과 행사를 보러 온 몇몇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날 진행된 우리그림의 날에는 북한의 미술, 중국의 목

판화등이 슬라이드로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전시기간 동안 약 25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시민미술전은 안양의 전시문화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남겼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의 문제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그림이 모든 행사를 우리그림의 큰 그림방, 혹은 근로자회관 강당을 이용하였는데 고급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의 전시 및 행사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점은 어느 정도 양면성을 띤다. 일단 미술관이 안양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가능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라는 점, 그래서 그간의 우리그림에 대한 다소 왜곡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그림이 지향하는 바 그림은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면에서 볼때 미술관에 드나드는 계층은 한정되

어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낯선 공간으로 여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그림은 그림을 전시해놓고 '보러오시오' 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림을 들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다음은 전시내용 문제이다. 시민미술전은 우리그림이 창립된 후 1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얻은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인식이 우리그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가 미술에 대한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전은 노동자 작품, 시민작품 등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그려진 그림들로 채워지기는 하였으나 그림의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작품도 다소 있었으며 일부 그림들은 내용이 회의적이며 표정이 없는 건조한 그림이라는 지적도 있었

다. 이점은 앞으로 우리그림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서 그림을 매개로 대중을 만나는 일꾼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회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그림

마지막으로 시민미술전에 대한 회원의 참여도 문제이다. 이번 전시회에 회원들은 그림을 출품하고 열림마당에 참석한 정도였으며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사무국 일꾼들이 뛰어다녀야 했다. 이는 사무국에서 행사 자체에만 신경을 썼지 이 일을 회원들과 어떻게 나누어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 일을 계기로 사무국에서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큰 반성이 있었다. 우리그림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만 움직일 수 있으며 그 움직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매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미술전은 우리그림의 가장 큰 사업으로 안양 지역에서 시민미술이 뿌리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전망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지역 소식

안양문화운동연합창립

민족문화예술의 실천적 활동과 대중적 보급을 통하여 참다운 안양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에 지난 10월 16일 안양문화운동연합이 창립되었다.

안양민요연구회에서 진행된 창립대회에는 지역노조, 단체 및 인천, 수원등의 문화활동가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 하였고 정관 확정, 임원선출, 사업내용소개 등이 있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회곡작가이자 연출가인 엄인희씨가 의장으로 선출 되었고 사무국장에는 전임 우리그림 사무국장인 박찬웅씨가 선출되었다.

이날 우리그림의 홍대봉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양지역에서 선도적인 문화운동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안문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임무와 과제를 성실하게 풀

어가야 한다고 한뒤 기왕에 문화활동을 전개해 왔던 문화 3개단체와의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문연은 창립보고대회 이후 첫번째 사업으로서 당면한 정치정세 속에서 요구되는 문화투쟁의 올바른 수행과 보다 높은 예술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창립공연을 준비중에 있다.

제5공화국의 정치적 비리를 풍자하고 민중의 자주화 의식을 고양시킨다는 내용의 연극공연 '떨쳐 일어나'는 노래공연 마당극공연, 시각미술 매체가 총동원되는 한판 종합예술한마당이 될 것이다.

공연일시는 12.4(일) 6시이고 장소는 안양근로자회관 대강당이다.

여성미술학교를 준비하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족을 위하여 가사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말에 대해 과연 그런가 하고 되물어 본적은 없으십니까? 반복되는 가사노동 속에서 ‘나의 삶은 어디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 본적은 없으십니까?

가정내에서, 직장내에서, 사회속에서, 여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참아야 되고, 순종해야 하고, 월급도 적고, 승진도 안되고, 차심부름 하고, 더한 경우 두들겨 맞기까지 하고…… 처음 인간이 태어날때 남녀 고유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나 사회적인 불평등 속에서 여자는 더욱더 불평등합니다.

이번 여성미술학교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 여성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받는 감동등을 판화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봅니다. 또한 판화작품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일시 12월 1일 ~ 12월 8일 오후 2~5시
(12월 4일 일요일은 쉽니다)

장소 우리그림 큰그림방(44-8942)

내용 12월 1일
일정소개 및 슬라이드 상영
제목 그림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강연자/김인순(민미협 여성분과장)
●슬라이드제작 우리그림, 민미협 여성분과 공동제작
12월 2일 ~ 6일
인물전형그리기, 판화제작, 판화찍기
12월 7일
판화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슬라이드 상영(제3세계 미술, 북한 미술)
12월 8일
작품감상, 비디오상영(TV 광고속의 여성), 뒷풀이

그림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본 내용은 여성미술학교에 사용될 슬라이드 교재를 만들면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재는 민족미술협회 여성분과와 우리그림이 함께 준비하였다.

한국 근·현대 미술에 나타난 여성

예술이란 사회현실, 역사발전,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다 순수하고 현실을 초월한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그러나 올바른 예술은 참다운 삶을 표현하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예술가의 뜻대로가 아니고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것이 곧 예술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미술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현은 개인의 아름다움(즉, 사회의 보편적 진리를 상실한 개인주의적 주관주의적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시대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이러한 예술활동을 통해 감동을 받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해방이후 현 자본주의시대까지 한국미술은 이 사회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한 그 한국미술속에서 한 평등한 인간인 여성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였는가? 이는 곧 일제 식민지 문화, 외세문화와 합쳐진 가부장제적 지배 문화 속에서 여성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고,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여성은 어떻게 평등한 인간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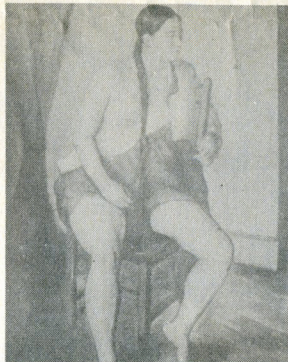
① 일제식민지 미술속에 나타난 여성

일제 식민지 미술은 일본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유입되었고 더우기 새로운 민족미술을 창조하려는 선구자들이 아니라 망국의 한을 술로 달래듯 예술에 빠지기를 원했던 화가들에 의해 근대미술이 시작되어 일제식민지의 현실과 무관한 유미주의, 자연주의로 나타난다. 식민지 통치하에서 식민지 정권이 문화정책이라는 교묘한 술책으로 예술관을 통제하여 향토주의적이고 서정주의적, 패배주의적 정서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죽은 모델로만 다루는 나약한 미술로 만들었다. 그것의 구체적 예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개막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이다. 선전에서는 초가풍경, 한국의상을 입은 여인, 꽃그림 등 단순한 재현미의 재현인 향토주의적 풍경과 표현미 자체만을 추구한 인물화를 선별하는 기준을 만들어 한인 출품자들이 민족적 현실이나 역사의식 또는 사회의식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하였다.

이때의 화가들은 서구미술을 도입한 일본 화가에게서 수업을 받으면서 많은 누드화가 그려졌다. 여기에 표현된 여성은 인간으로서

가 아닌 미술소재의 대상으로 습관화되었고 무비판적인 답습상태였다 또한 매국세력과 야합한 미술가(김관호)는 금채현납도(여성들이 수집한 금비녀를 총독에게 헌납하는 모습을 그림)를 그려 헌납을 고취시키는데 이용되었다.

1910~40년대 그 당시 역사속에서의 여인들은 유관순 등을 위시해 건강한 정신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해방을 위해 일하고, 어렵게 현실을 극복하며 사는 여성이 많았다. 그것이 현실이었음에도 화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은 나물캐는 소녀, 누드, 귀부인 등이었다.



화가에게 강요된 식민지 예술관은 휴머니즘, 인간해방, 민족해방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마비시켰고, 식민지적 현실을 주제로 하여 우리의 삶과 미술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철저히 차단했던 것이다. 이 시대 화가들이 참다운 삶, 즉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는 삶을 그림으로 표현해 낼 수 있었다면 예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민족해방, 인간해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해방이후 미술에 나타난 여성

8·15해방과 더불어 청산되어야 했던 식민지 미술이 정부수립후 민족사관의 작가는 월북하고, 일본관제문화에 발탁됐던, 식민지적 사고에 굳은 작가들이 관의 비호아래 일제의 「선전」과 동일하게 국전을 주도해 나갔다. 따라서 일제하에 형성된 개성 및 의식부재의 화법이 끊임없이 미술교육을 통해 옹호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 잔재는 그대로 그림속에 나타났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을 낮추어 보고 관에 대한 생각은 우월한 것으로 존중되는 사고가 미술계에 뿌리박혔으며 국전에서의 수상과 초대는 예술의 본보기로 군림하는 모순을 낳았다. 이는 해방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풍토에 「순수주의」가 끈질기게 작용하여, 예술을 인간의 삶이라는 사회적, 실존적 차원에서 탐구되는 것을 금기처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병폐이다. 구체적 삶의 내용을 다루는 미술은 마치 일제하에서 「불온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취급하고 현대미술이란 모든 미술외적인 것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점을 내세우며 예술지상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 작가의 추상회화 도입은 구라파, 미국의 미술흐름이 보다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져 원래 의미는 빠뜨리고 형식모방과 국제적 유행사조에 추종하는 무비판적 수입과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왔다. 이는 식민지하 예술이 현실을 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이후 외세문화와 이에 결탁한 독재정권, 자본제문화속의 예술 역시 예술순수주의라는 미명아래 현실을 표현하지 않았다.

여기서 여성을 표현한 그림 역시 일제 식민지 내용이 답습되며, 그와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로 자리잡을 때는 남성의 성의 대상으로 표현된다. 이는 서양의 미술에서 여성을 통제할 수 없는 어두운 에너지, 육신적 욕망, 초자연적, 반이성적 이미지로 표현되며 누워있는 관능적 표현, 비활동적 관능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관이 현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작가 스스로도 제재할 수 없는 비이성적 모습의 환상과 슬픔, 비애, 심오한 사랑 등 윤리적 태도에서 자유로운 여성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식민지 잔재와 외세문화속에서 우리의 삶과, 일하며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여성을 그림에서 표현한 것은 80년대 이후에서였다. 이는 작가뿐 아니라 감상자 역시 개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문화속에 있으면서 현 시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림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③ '80년대 이후 그림속에 나타난 여성

예술순수주의, 유미주의를 반성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조적, 관념적 현실이 아닌 구체적, 직접적 현실을 표현하는 그림이 나타났다. 이른 운동으로 발전하여 민족적인 내용과 정서를 담는 것이 형상으로 표현되었으나, 초기에는 문제극복이나 체제변혁 지향보다는 현실 그대로 그리는 것을 시도하여 오윤씨의 작품에서는 상품화되는 여성,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그림 등이 그려졌다. 또한 인간해방의 차원에서 여성을 표현하고 남녀평등세상의 내용을 표현하였다.



한편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해 가면서 여성작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여성의 현실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그림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감동하는 것은 그것이 한 작가 개인의 아름다움이나 색채, 구도보다는 그 그림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표현했느냐이다. 즉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수 있고 그것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정신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변혁은 작가뿐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도 함께 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유신중전기 노동조합을 찾아

우리그림의 편집부 기자가 유신중전기를 찾은 것은 지난 8월 말경이었다. 9월초로 예정되었던 우리그림 6호의 발행이 계속 미루어짐으로 해서 진지하게 취재에 임해주신 유신중전기 노동조합(이하 유신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늦게나마 간단한 기사를 신는다.

유신중전기를 방문하기 전 기자가 갖고 있었던 유신노조에 대한 인상은 단단한 결속력, 활발한 문화활동, 대외활동이 활발한 만큼

선도적인 노조 등이었다. 이러한 인상은 유신노조를 직접 방문하면서 더욱 견고하게, 놀라운 믿음으로 자리잡게 된다. 유신중전기는 호계동 쪽 공장지대 깊숙히 자리잡은 사업장으로 작년 7·8월 노동자 대투쟁기간에 10일간의 파업을 시작하면서 노조가 창립되었다. 약 84명의 현장노동자 전원이 조합원인 유신노조는 회사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힘있는 조합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작년 8월 투쟁때 단결된 모습의 유신중전기 노동자들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권태인 노조위원장은 아직 인식도 적으며 열심인 조합원은 소수라고 대답하면서도 독자적인 노동문화제가 있음을 자랑한다. 문화제는 조합원들의 동참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써의 의미가 있으며 따로 문화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 행사때마다 자연스럽게 모여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권위원장의 문화활동부재에 대한 유감표시에도 불구하고 유신노조는 파업때의 촛극, 신문제작, 풍물 등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특히 촛극은 웬만한 전문극단 뺄치는 수준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림에 대한 인식은 권위원장 스스로도 전문가들이나 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걸개그림 등의 제작에 참여해보니 쉽고 재미있으며 애착도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그림이 할 일이 바로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냐며 한마디! 우리그림에 대해서는 각 노조들과의 적극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노동미술강좌와 현장교육용 사진이나 슬라이드 제작을 부탁한다.

노조와 문화운동단체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자는 다짐을 나누고 돌아오는 기차의 가슴에는 유신중전기가 삭막한 공장이 아닌 뭔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장소로 남아 있었다.

강좌안내

사진·생활공예·수채화

매월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드·달력
판매합니다

빛살무늬 우리그림내
종합기획실